

# 道 경제견인 선도기업 선정

## 대우전자부품·티앤지 등 9개사 영예... 5년간 기술개발·사업화 등 지원

전북도는 도내 제조업 성장을 견인하고 성장동력산업간의 중추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선도기업 9개사를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9개 기업은 ▲(주)대우전자부품 ▲(주)티앤지 ▲태산EVG ▲해성씨앤씨(주) ▲(주)블스원신소재 ▲정우정공(주) ▲(주)시지트로닉스 ▲(주)내유에이피 ▲(주)원광전자이며, 기준에 선정된 77개사를 포함한 총 86개사가 전라북도 선도기업으로 지정됐다.

선정된 기업은 선도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지역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 및 허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기술개발 지원(R&D), 사업화 지원(현장에로기술해결, 마케팅), 성장지원(컨설팅, 교육훈련), 구인활동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선정사 중 하나인 (주)대우전자부품은 도내 지역의 대표적인 자동차 전장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IMF 시절 적자 기업에서 꾸준한 기술개발로 5년만에 흑자 기업으로 탈바꿈 했으며,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장부품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성장으로 향후 월 드클래스 300기업에도 도전할 계획이다.

(주)블스원신소재는 탄소섬유에 니켈, 구리 등의 금속을 도금하여 전기전도도, 열전도도 등의 성능을 향상시킨 제품으로 전선용 전자파 차폐재, 자동차 경량화 부품에 적용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향후 도내인력 창출 및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우수기업이다.

선도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최근 5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6.3%(전국 3.3%, 전북제조업 2.8%) 증가, 구인

구직 활동 지원을 통해 전년 대비 454명의 일자리 창출, 매출성장이 고용안정과 좋은 일자리 구현으로 이어져 인건비가 연평균 11.8%(전국 8.9%, 전북제조업 9.9%) 증가 등의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선도기업으로 선정되어 기반을 튼튼히 다져온 결과 12개사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글로벌 중소기업 및 월드클래스300기업에 선정되어 중견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다지고 있다.

도 유희숙 경제산업국장은 "선도기업이 지역 경제성장, 수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견인차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선도기업 육성을 통해 전북의 한국형 하든벨기업이 배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세계잡버리는 새만금에서”

송하진 도지사는 27일 서울 외교부를 방문하여 조현 외교부 제2차관과 면담을 갖고 세계잡버리 새만금 유치에 대한 외교부의 지원요청을 건의하고 있다.

# 도, 열악한 지역아동센터 ‘폭염 걱정 끝’

## 이달 말까지 9개소 쿨루프 사업 추진... 실내온도 4~5℃ ↓

전북도는 27일 도내 어린이 학생 등 돌봄 시설 중 시설이 열악한 지역아동센터 9개소를 대상으로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쿨루프(Cool Roof)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쿨루프 사업(Cool Roof)은 건물 옥상에 흰색 페인트를 칠해 햇빛과 열을 반사함으로써 건물의 실내온도가 4~5℃가 낮아져 냉방에너지 사용을 20% 정도 줄이고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그동안 사업 추진을 위해 (주)KCC와 에너지 절약 사회공헌사업을 포함할 수 있도록 3월부터 업무 협의 등을 수차례 진행했고, 지역아동센터 전보지원

단의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무상으로 혜택 받는 도내 지역아동센터는 전주 1, 익산 5, 원주 1, 무주 2개소이며,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대상 지역아동센터의 원장은 “그간 장마철 집중호우시 건물지붕이 누수되고, 불발 더위시 복사열로 인해 불편을 겪어 왔다”며 “올해 여름부터는 걱정없이 아이들을 잘 돌 볼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매년 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전북도, 전북기후 환경네트워크, (주)KCC전주공장, 지역아동센터 전보지원

단은 2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련기관들은 도내 시설이 열악한 지역아동센터가 에너지 관련 사업에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설 내 에너지 진단 컨설팅과 기후변화 교육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도 최재용 환경복지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쿨루프 사업 등 기후변화 적응사업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께서도 에너지 절약에 대해 저탄소 생활 실천에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 산림 내 불법행위 꼼꼼마

## 단속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전북도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산림내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27일 도에 따르면 자연휴양림, 산간계곡 등 산림 내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산지오염, 불법야영, 산림내 불법취사행위 등 불법행위가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 계도 단속을 집중 실시 한다고 밝혔다.

휴양객들을 대상으로 산림 내 불법쓰레기 투기 금지 계도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산 쓰레기 수거 활동을 여름 휴가철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정화 및 주요 계도·단속지역은 산림정화구역과 주요 등산로변, 산림휴양 인파가 많이 찾는 유명 산간계곡 등이다.

도내 10개소(1,035ha)의 산림정화구역과 자연휴양림 등 주요지역에 산림보호지원 인력 등 124명을 집중 배치, 계도와 감시활동을 전개, 산림관련단체(산림조합 등)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 산림환경보전의 중요성 등 홍보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정화구역 내 오염물질,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보호·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표지를 훼손하는 행위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20~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 “진드기 매개 감염병 조심하세요”

## 도내 첫 SFTS 환자 발생... 예방수칙 준수 당부

전북도 보건당국은 지난 26일 도내에서 올해 첫 번째로 SFTS(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환자(사망)가 보고됨에 따라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SFTS에 대한 예방 주의를 당부했다.

SFTS는 4월에서 11월사이 잠진드기(주로 작은소피잠진드기)에 물려 발생하고 고열,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혈소판 감소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전국적으로 2013년 최초사례가 확인된 이후 도내에서는 2015년에 2명의 확진환자가 모두 사망, 2016년도에도 3명의 확진환자가 발생 한 바 있다.

올해 도내 첫 확진(사망)환자는 만 79세 여성으로 가곡읍 텃밭에 나가 작업을 했으며, 6월 6일부터 식사량이 줄고 오한과 어지럼증이 있어 6월 13일 한방을 유도, 산림환경보전의 중요성 등 홍보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정화구역 내 오염물질,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보호·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표지를 훼손하는 행위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20~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중 6월 16일 오전에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사망했다.

6월 16일 예수병원에서 의뢰한 검체가 6월 20일 전북보건환경연구원 에서 SFTS바이러스 양상으로 확인됐고, 6월 26일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중국, 일본, 한국, 3개국에서 발생이 보고되고 있으며, 치사율이 10~30% 정도로 높은 질환으로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진드기(작은소피잠진드기 등)’에 물려 감염되는 질환으로 해당 진드기는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불철저한 주로 발생한다고 알려졌으나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연중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SFTS 등 진드기 매개감염병은 농작업, 등산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김진성 기자

# 간편창업 지원상담실 개소... 전국 시·도 ‘이목집중’

## 테크노파크 벤처지원동 위치 한 공간서 원스톱 고민 타파

전북도는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지식재산센터,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협업, 창업부터 사업화까지 성장단계별로 한 공간에서 종합 해소하는 간편창업종합지원상담실(이하 ‘간편창업상담실’)을 27일 개소했다고 밝혔다.

개소식은 행사부 한치흠 민원서비스정책 과장, 전북도 유희숙 경제산업국장, 전북테크노파크 강신재 원장, 전북지식재산센터 정승원 센터장,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김진수 센터장 등 기업지원 기관과 모선루트, 엔텍코리아

등 20여개 창업기업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간편창업상담실’은 지난해 9월 행정부 주관으로 추진한 간편창업 우수사례 전국 지자체 공모에서 전북도 제안과제가 전국 최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돼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2억원을 지원받아 전북테크노파크 벤처지원동에 구축하게 됐다.

본 상담실은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북지식재산센터 3개 기관이 공동으로 구축한 협업공간인 CNIP를 기반으로 창업과 관련된 컨설팅, 지식재산 관리, 기술금융, 기술해소지원 등의 서비스를 연계 지원한다.

또한, ‘간편창업상담실’은 창업전문 컨설턴트 및 매니저가 상주하여 법인 설립 사업자 등록 공장설립 지식재산권 등록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등 창업부터 사업화까지 기업경영 전반을 지원하는 간편창업 토탈 솔루션 거점센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도 유희숙 경제산업국장은 “간편창업종합지원상담실이 전국 시도에서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는 곳으로서 앞으로 이 상담실이 도민의 아이디어가 창업에서 사업화까지 가는 성장 디딤돌이 되도록 신규 시책을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하여 ‘사업화성공 비즈니스’ 모델로 정착시키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